Shut Then Open

Short Film

인예림

Story

Synopsis

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기만 하는 수아.
붙잡아지지 않는 인연에 상처받은 그녀는 이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.
피상적인,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관계만을 가지는 수아.
정말 운명이라면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누군가 자신의 선을 넘어와주기를 기다린다.
누군가와 깊게 사귀지 않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려 한다. 그것에 편안함을 느낀다.
누군가 찾아왔다 사라지고, 그것이 전부인 일상을 수아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받아들이고 있지만,
사실 마음 속에는 누군가와 강하게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남아있다.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간다.
어느 날 문득 수아는 이제 사람들이 다가오기만을 바라는 것에 지친다.
기다리는 것에 지쳐, 관계의 끈을 이어보려는 수아.
하지만 수아는 기다리는 법 외에는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.

Character Biography

수아의 삶에는 이별이 많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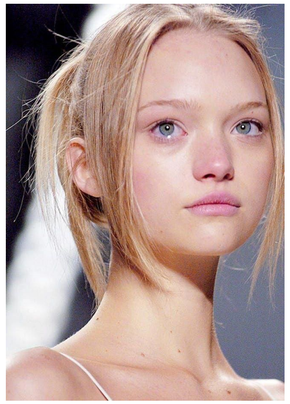
처음으로 이별한 사람들은,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인 부모님이었다.
수아는 고등학생일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는다.
그 후 수아는 힘들어했다. 홀로 남은 집에서 과거 사진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.
수아는 주변인들에게 우울함을 감추질 않았고, 반복되는 우울함에 지친 친구들이 떠났다.
그 후 수아에게는 의지할 곳이 애인밖에 없었는데, 많은 이들이 이별하는 평범한 이유로, 애인과 이별한다.
하지만 수아는 자신이 우울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인이 자신을 떠났다고 오해한다.

수아는 사람들을 붙잡으려 할 때마다 역효과가 났다.
연속된 이별로 인해 수아는 상처를 받는다. 마음의 문을 닫는다.
이런 경험들로 인해 수아는 관계나 인연은 운명이 만들어주는 것이고,
나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.
관계에 있어 수동적인 인물로 변해버린 것이다.

그 뒤로 수아는 피상적인 관계만을 맺는다.
자신이 선택한 것이지만, 그런 관계의 양태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.
게속된 상처로 인해 수아는 자신의 마음을 열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기만 한다.
하지만 그들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.
거절이 두렵기 때문에. 자신의 노력이 소용이 없을까 봐 두려워한다.

그러던 어느 날,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자신의 태도에 싫증이 난다.
그 날 찾아오는 사람을 그냥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한다.
하지만 오랫동안 누군가를 떠나보내기만 했던 수아는 사람z을 곁에 두는 방법을 잊었다.
지루하고, 외롭고, 고독하지만 원래대로 살면 편하다.
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은 어렵지만 이제 누군가 곁에 있게 된다.
하지만 수아는 망설이다 기회를 놓치고, 다시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게 된다.

수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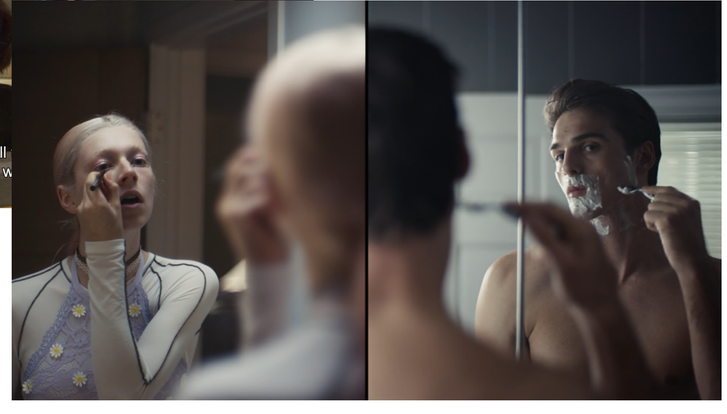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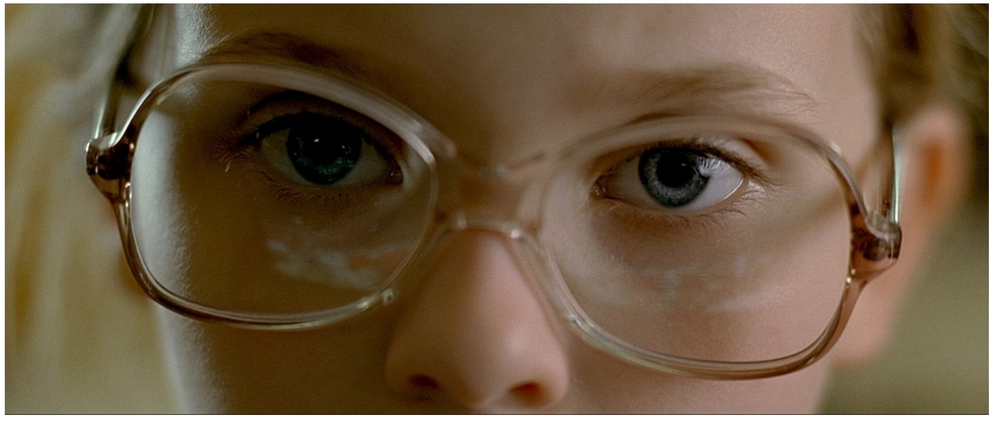
Narration

나레이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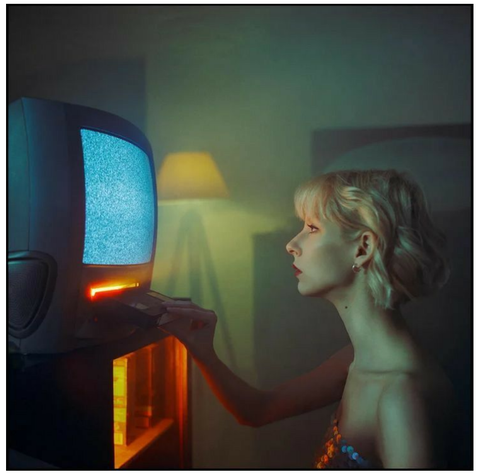
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수아란 인물을 설명하는 장치.
객관적인, 감정이 없는 존재는 아니다.
마치 절대자처럼 수아를 관찰하는 듯하다.
수아를 응원하기도 하며, 수아에게 회의적인 존재.

Mood Board (1)





Mood Board (2)



Schedule

5/30 오후 8시 - 5/31 오전 6시

충무로 스튜디오

위 시간은 미술/조명 세팅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,
촬영 시간은 더 짧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Contact Info

인예림

010-6251-7070
yelim0817@kookmin.ac.kr

Instagram @iylmmn

위 연락처 중 하나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.